

/ ENVIRONMENT // NEWS /



휴대폰 전자파, 밀폐공간서 7배 '증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에 시판되는 휴대전화 7종의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통화 연결 대기과 지하철이 움직일 때, 엘리베이터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전자파가 최대 7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대기 중 0.03 ~ 0.14V/m, 통화 중 0.08 ~ 0.24V/m로 나타났는데 통화 연결 중에는 0.11 ~ 0.27V/m로 나타나 전자파 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1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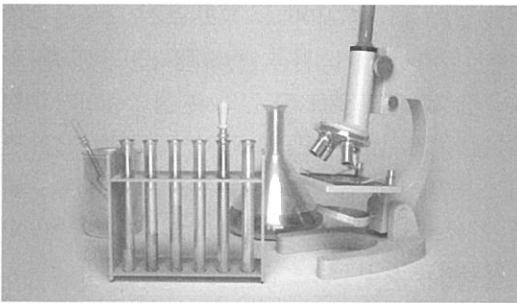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유발가능물질로 분류, 매일 30분 이상 장기간(10년 이상) 휴대 전화를 사용한 사람의 뇌종양 및 청신경증 발생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40% 가량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1회용품 없이 먹고 마시기'에 동참해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대표적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2020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2012년 대비 22% 줄이는 것에 대한 골자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지난 5월 3일 체결했다. 커피전문점은 2020년까지 매년 매장당 음료 판매량 대비 1회용 컵 사용량을 전년대비 3% 포인트 이상 줄이고, 패스트푸드점은 2020년까지 매년 매장당 매출액 대비 1회용 컵, 1회용 용기, 1회용 스푼, 종이갈래(트레이맵) 등의 사용량을 전년대비 3%포인트 이상 줄여야 한다. 참여하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커피빈, 카페네스카페, 자바씨티, 카페두오모, 크리스피크림 등이며,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대표적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과 2020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2012년 대비 22% 줄이는 것에 대한 골자로 하는 자발적 협약을 지난 5월 3일 체결했다. 커피전문점은 2020년까지 매년 매장당 음료 판매량 대비 1회용 컵 사용량을 전년대비 3% 포인트 이상 줄이고, 패스트푸드점은 2020년까지 매년 매장당 매출액 대비 1회용 컵, 1회용 용기, 1회용 스푼, 종이갈래(트레이맵) 등의 사용량을 전년대비 3%포인트 이상 줄여야 한다. 참여하는 커피전문점 브랜드는 스타벅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커피,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스쿠찌, 커피빈, 카페네스카페, 자바씨티, 카페두오모, 크리스피크림 등이며,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KFC, 버거킹, 파파이스다.



환경오염 원인도 '과학수사'로 찾는다!

앞으로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과학수사기법을 적용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환경과학수사기법은 기존에 행하던 환경오염의 단순 현상평가에서 한 단계 발전한 '누가', '언제'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는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오염 원인규명과 환경 분쟁 조정 등에 목적을 둔 환경오염도 조사기법이다. 환경과학원은 2011년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5년간의 연구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부터 '중금속 동위원소를 이용한 오염물질 발생원

추적 연구'를 통해 본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구 기반이 구축되면 기존의 농도조사와 달리 중금속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정확한 오염원 소자와 그 오염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원 추적과 기여율 산정기법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보상에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ENVIRONMENT // NEWS /



이끼류 30종, 우리나라 최초 발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시행한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를 통해 기름종이이끼과와 봉황이끼과에 속하는 2종의 신종 이끼가 제주도에 자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더불어 우리나라 자생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던 미기록 선대식물 총 28종도 발견하였다. 보통 '이끼'라고 불리는 선대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2만여 종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한 30종을 포함해 총 933종의 선대식물이 자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원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선대식물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을 명명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해 이들이 우리나라의 자생 생물자원임을 알릴 계획이다. 선대식물은 그동안 국내 연구가 미흡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속해서 신종, 미기록종 조사·발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암산 용늪을 살려라! 군부대 이전작전!

우리나라의 람사르 협약 등록 제1호 습지이자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대암산 용늪의 육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대암산 용늪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층습원으로 다수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한국특산종이 서식하는 자연자원의 보고이다.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4년간 총 3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용늪을 살리기 위한 '군부대 이전 및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용늪의 육지화 진행이 특히 근처 군부대의 연병장 등에서 쓸려 내려오는 토사나 일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가속화 될 것이란 우려에 따라 추진되었다. 원주지방환경청관계자는 "육화방지사업이 완료되면 용늪의 습지기능이 더욱 살아날 것"이라며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는 등 용늪이 야생생물이 살아 숨 쉬는 생명력 넘치는 습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아이겨 '환경마크' 확인하면 걱정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완구용 LED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설정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마크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모든 향료와 형광증백제의 사용이 금지되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사용량도 최소화 해야 하며, 또한 봉제인형의 섬유 등에 남아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옥틸페놀과 노닐페놀, 옥틸페놀에톡실레

이트 및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잔류허용량은 총합 100mg/kg 이하로 규제하게 된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안전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연 뿜는 차, '첨단장비'로 단속한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측정해 단속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자외선과 적외선을 쏘아 달리는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개선명령서가 통보되며,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

업소에 가서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격측정 방식은 기존의 강제 정차식 노상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측정해 단속할 수 있고,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지 않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며 강제정차에 따른 시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를 측정해 단속하고, 운영결과를 토대로 단속지역과 단속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부터 저탄소차 '보조금' 나온다

새롭게 도입될 '저탄소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대형차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는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차량 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소비문화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친환경차 개발·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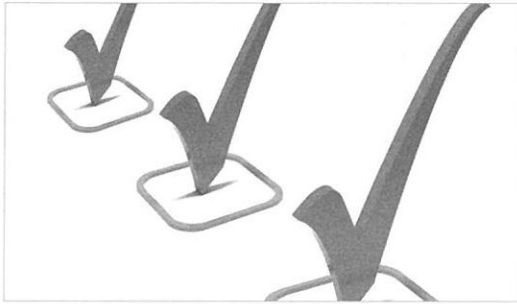


환경관리, 후견인이 제대로 도와드립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평가협의 담당 공무원 26명을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1인 1사업장 책임 환경관리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환경관리 후견인 제도를 도입, 비교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환경관리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와 상시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은 물론 최소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자문에 응하고, 협의내용 이행

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문과 법률 및 행정제도 변경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애로사항을 함께 해소해 나가게 된다.

/ ENVIRONMENT // NEWS /



폐수처리 전문? 법령위반 '무더기' 적발

폐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들의 '비전문적'인 위반 사실이 드러나 관리개선방안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간 폐수를 수탁 받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 45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30개 업체가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42건)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30개 업체는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운영일지 허위기록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폐수배출시설 조정금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처리업체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2013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25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13년 중소기업 품질혁신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모기업상에 '한국파워트레인(주)(자동차용 토크 컨버터)'를 선정해 대통령표창을 시상했다. 품질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와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등 기업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 품질에서 비롯된다"며 "그동안 많은 국내기업들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이루어 왔다"고 격려했다.



환경안전관리 산업계 실천 선언식

최근 화학물질 사고에 따라 산업계가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지난 4월 18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안전관리 산업계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연만 환경부 차관,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한상의 환경기후위원회 소속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계는 선언문을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의 환경·안전관리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 교육을 통한 환경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